

사회공헌 아이디어 현실로...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

핸즈프리 통신장비·안구질환 진단기 대상

삼성전자는 2일 서울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 R&D캡스에서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투모로우 스토리는 먼저 삼성전자가 사회현안 해결책을 찾는 공모전인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시상식을 진행했다.

1613개팀에서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메이데이'팀이 만든 재난구조 현장용 핸드프리 통신장비가 아이디어 부문 대상, '프로젝트 봄'이 만든 실명 예방 안구질환 진단기가 임팩트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어서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시상으로 이어졌다. 2403개팀 중 23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패키지 여행 가이드 앱'을 개발한 정동윤 학생이 대상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를 열고 투모로우 솔루션 및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번 시상식 이후에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수상작들이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드림클래스 단편영화 '별리섬' 3000만뷰 돌파

삼성전자 교육사회공헌 이야기 담아

삼성전자의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삼성드림클래스'를 소재로 제작된 단편영화 '별리섬(My Dream Class)'이 지난달 25일 공개된 지 9일 만에 주요 SNS 채널 합계 3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또한 별리섬은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8일 만에 2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앞서 제작한 단편영화 '두개의 빛: 릴루미노'가 개봉 3주 만에 20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



학생 강사 출신이자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 중인 강민구씨는 "별리섬에서 드림클래스 대

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가.

특히 드림클래스의 주축인 중학생과 대학생 강사의 연령층인 10대~20대 시청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드림클래스대 학생 강사 출신이자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 중인 강민구씨는 "별리섬에서 드림클래스 대

학생 강사로 나오는 기탁(변요한 분)이 느낀 감정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상 우리 주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드림클래스에 고맙다"라고 시청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한 배종 감독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다,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높게 봐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요청으로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버전도 제작할 예정이며, 삼성드림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185개 중학교에도 영화를 배포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금융, 더이상 '북극성' 아니다



기자 수첩

유재희 (파이낸스&마켓부)

오래전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낮에는 해와 바람에, 밤에는 달과 북극성(北極星)에 뱃머리를 의지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금융은 뱃사람들의 북극성과 같다. 삶의 조력자이며 생계의 연료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모토인 포용적 금융이 어찌어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중소기업 대출, 동산담보 대출을 촉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가계대출 부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돈을만 죄고 있다.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음에도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다. 당국의 가계부채의 대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금융권을 전반위적으로 압박해 대출창구에 냉기만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도 DSR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고 대출은 많은 차주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그동안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도 담보 등이 충분하다면 대출 문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을 15%, DSR 90% 초과 대출의 경우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9.6%에 달한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은행본부의 대출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자본 마련에 대한 우려는 지극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서민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신고액이 낮은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차주의 이자 부담이 불어날 경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져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쫓겨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답은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최중구 금융위원장 의 위대한 역사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ryusoul9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9월 28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경거망동하지 말고 주의하는 것도. 60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노력이 필요하다. 72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나 뜻밖의 좋은 일이 있겠다. 8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말	54년생 원숭이띠. 용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66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할 날. 78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90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
 소	49년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조금 더 기다리자. 61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자. 73년생 인생사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착하게 살자. 85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양	55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를 주의. 6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79년생 우물이 옆에 있어도 두레박이 없어서 답답하다. 9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호랑이	50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항상 노력. 62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아맛이다. 74년생 내가 믿어야 남을 설득시킬 수 있다. 86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지 마련이다.	 원숭이	56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8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80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9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토끼	51년생 가만히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63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75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가 나에게 엄청난 기회로 온다. 87년생 가끔은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닭	57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69년생 아침부터 손뼉에 땀 난 채 가듯이 매우 순조로운 하루. 81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슬수를 예방한다. 93년생 비상상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여야 한다.
 용	52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는 소중히 간직. 64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되니 이득이 많은 날. 76년생 모래 위에 쓴 명세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88년생 한번쯤 참으면 열음이 편하다.	 개	58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70년생 결혼은 둘이 했으나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82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94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으니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
 뱀	53년생 망설이다가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65년생 유래, 상패, 통쾌한 하루. 77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89년생 고품격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니 행운이 온다.	 돼지	59년생 나의 흥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71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83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95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김상회의四季 멈춰야 미래가 보인다

현대인들에게 배달음식은 편리함의 상징이다. 시간 들여 요리를 하지 않고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다. 새벽마다 현관 앞에 아침점거리와 반찬 재료를 배달해주는 업종도 인기가 좋다. 장을 보지 않고 문 앞에서 곧바로 요리재료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이는 현대인들이 무척 바쁘다는 방증이다. 직장일과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하고 아이가 있으면 육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함을 찾는다. 그러나 이렇게 바쁘고 힘겨울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쁘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숨 돌리고 몸과 마음을 쉬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자기의 방이나 카페 도서관 자동차 등 어디라도 좋다. 자기의 마음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꽃과 나무를 가꾸듯 마음에 흠뻑 물을 주고 심심하게 키워 보는 것이다. 마음에 휴식을 주고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명상과 성찰을 권한다. 조용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바쁜 현대인에게 오아시스와도 같다. 또한 자기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구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명상과 성찰은 인생을 구상하는데 최고의 동반자이다. 인생 구상에 뺄놓을 수 없는 건 자기에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에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알려면 자기의 시주를 알아야 한다. 역학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알려준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삶이며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만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준다는 걸 알려주는 학문이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기의 삶이 어디쯤 서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내다봐야 할 것이다.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은 쉽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꾸준히 미래로 가는 길을 닦는 방법은 분주한 발걸음이 아니다. 가끔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8	7	9	6	4	2	5	
	1		4		8		2	
			7		3			
	3		5		6		8	
	7	2	3	8	1	9	6	
9								3

	1		3				7	
		7					9	
2		6	5		7	3		4
		1	6		3	2		
			3	2		9	5	
1		5	8		2	4		7
		8				1		
	3			1			9	

스도쿠 정답

2	8	6	5	9	1	7	3	4
4	1	5	2	7	8	9	6	3
7	9	6	1	8	4	3	2	5
6	8	1	9	2	5	7	4	3
5	7	9	4	1	6	2	8	3
3	2	4	8	6	7	5	1	9
1	5	2	7	9	6	4	8	3
9	6	3	2	8	1	5	7	4
8	4	7	5	1	9	6	2	3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76호